

/ 안중근 의거 100주년 문화행사 다채 /

평전·소설·뮤지컬·오페라로

되살아난 大韓國人



2009년은 안중근(1879~1910)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아 국내 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안 의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와 뮤지컬 공연, 평전 발간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중근 평전’ 발간·소설 ‘불멸’ 연재 뮤지컬 ‘영웅’도 곧 관객들 찾아가

먼저 단체 신재호, 백범 김구 등을 쓴 평전 전문 작가 김삼웅 씨가 ‘안중근 평전(시대의창·1만7천800원)’을 냈다. ‘안중근 평전’은 안중근 의사가 주창한 ‘동양평화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롯해 역경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드러낸 안 의사의 삶을 담았다. 저자는 ‘동양평화론’ 집필을 둘러싼 안 의사와 히라시 법원장의 일화를 비롯해 안 의사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하얼빈 의거와 이후 공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조망했다. 역사소설가 안동익씨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찾기와 관련한 추리소설 ‘안중근 100년 만에 귀국, 안중근 유해를 찾아라(가재)’를 집필 중이다. 안중근청년아카데미(www.danji12.com) 창립 발기인, 현 운영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씨가 집필중인 추리소설은 오는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99주년 기념일에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안중근 유해 찾기와 관련된



뮤지컬 ‘영웅’에 캐스팅된 배우 류정현(왼쪽)과 정성호.



창년기까지를 재조명하는 ‘불멸’을 연재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는 최근 문화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인 뮤지컬로 만들어져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형 뮤지컬의 새 장을 열었던 ‘명성황후’를 만든 윤호진씨가 직접 연출을 맡은 ‘영웅’이 화제의 작품으로 최

근 오디션을 거쳐 출연진을 확정했다. 주인공 ‘안중근’ 역에는 남자 뮤지컬 배우 가운데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 류정현과 개그맨 출신으로 이제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를 굳힌 정성호가 캐스팅됐다.

또 ‘이토’ 배우 이희정과 조승룡이 더블 캐스팅됐으며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이자 이토를 유혹하는 ‘설희’ 역에는 김선영이 발탁됐다. 그밖에 안중근 의사의 동지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중국 여인 ‘링링’역에는 소나와 오진영이 더블 캐스팅됐다.

‘영웅’은 의거 10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26일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된다.

그밖에 6월에는 안중근의사승모회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창작 오페라 ‘대한민국 안중근’이 공연될 예정이다.

한편, 3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논문집을 낼 계획이며 10월에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총망라한 자료집(25권)도 발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광주극장과 ‘워낭소리’



김미은 문화부 차장

지난 7일 ‘워낭소리’를 상영중인 광주극장 관계자를 취재했지만 도저히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끊임 없이 물러대는 문전화 때문이었다. ARS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터라 직원들은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후가 되면 직원들 모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인근 주차장도 주말이면 극장 관객들로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 길게 줄을 선 관객들 모습에 이웃한 가게 주인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즈음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의 풍경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작은 기적’처럼 보인다. 광주극장의 연 관객이 2만명 수준인데 ‘워낭소리’ 한편만으로 10일 현재 7천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광주극장이 북적북적해지자 극장 관계자 만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멀티플렉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귀한’ 영화들을 볼 수 있어 행복해했던 영화관들이다. ‘워낭소리’ 이전까지 인디영화와 독립영화 흥행 기록을 갖고 있던 ‘원스’와 ‘우리 학교’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광주극장이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아카데미 주연상을 안긴 ‘데어 윌 블러드’와 ‘렛미인’을 상영한 극장도 광주극장이 유일했다.

조금은 쌀쌀한 객석을 볼 때마다 광주극장이 사라질까 마음 졸였던 이들에게 딱 한 로비와 출서 있는 관객의 모습은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 기념할 만한 풍경이다.

지난 8일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워낭소리’ ‘우리학교’의 고영재 PD는 “멀티플렉스에서도 상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낭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광주극장에서 관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을 지켜달라”는 고PD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답했다.

사실,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극장측은 지난해 말 운영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한국예술영화진흥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워낭소리’의 흥행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최근에는 학교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극장 폐쇄 이전 명령을 받은 후 10년 가까이 끌어왔던 소송에서 승소, 심리적 부담감도 덜어냈다.

물론 흥행과 한몫이 갑자기 광주극장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워낭소리’를 통해 ‘작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월의 더께가 쌓인 문화 공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 사람이 늘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갖는 의미는 특별해 보인다.

‘워낭소리’를 상영했던 멀티플렉스 가운데 고PD가 배급할 로테트당영화제 수상작 ‘똥파리’와 ‘농민가’를 상영할 극장은 몇 곳이나 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영화를 ‘광주극장’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美 화단에 색다른 창작 기법 알리겠다”

“광주서 누드 드로잉 시연회 열려요”

에일대 전시·특강 이이남씨



이이남씨는 “미국 화단에 색다른 기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안내하겠다”면서 “정적이라고 여겼던 동양화에 움직임과 감성을 가미한 작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작하는 철학과 방법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작품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WEEKEND IN NEW YORK’ 특선에 소개되는 등 미국 화단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와 특강도 이씨의 작품을 감상한 화교 관계자들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작가의 소명이며, 끊임없이 해의 무대에 진출하는 것도 새로운 예술 양식을 만드는 작가의 꿈입니다.”

‘모나리자’ ‘목죽도’ 등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41)씨가 미국 예술대학교에서 전시회와 함께 특강을 한다.

이씨는 오는 5월20일까지 이 학교 미술관에서 김홍도의 ‘목죽도’를 새롭게 해석한 ‘신목죽도’ 등의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작가이다. 또 모네의 ‘해돋이 인상’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업에서는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밝아오는 항구의 아침을 표현하는 신선한 시도로 해외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오는 17일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아트 고전회화와 현대 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도 연다.

그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재료를

초대로 이뤄질 것이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유클럽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5일 시안갤러리



오창록 ‘누드 드로잉’

인간은 끊임없이 알몸을 예술로 표현해 왔다. 그렇게 여체의 절묘한 곡선과 질감이 자아내는 탄력은 밀로의 ‘비너스’를, 부드럽고 육감적인 관음미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다나에’를 탄생시켰다.

광주에서 유동적인 몸짓과 각양각태의 포즈를 느낄 수 있는 누드 드로잉 시연회가 열린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 빅아트 내에 위치한 시안갤러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6시에 전문 모델을 초빙하는 누드 드로잉 시연회를 연다. 재료비 1만원을 내면, 작가와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시안갤러리는 또 13~3월1일까지 여체의 완벽한 균형을 표현한 누드 드로잉 작품을

모든 ‘하얀 여행’전을 함께 연다. 이 전시에는 박상규, 오창록, 전현숙, 조정순, 최태형 씨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옷이나 액세서리로 치장하거나 화장으로 얼굴을 감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몸을 통해 자유와 생생의 울림을 형상화한 다양한 누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573-0177. /오광록기자 kroh@

Movie guide section with various cinema listings including MEGA 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NERS THEATRE, HAMI CINEMA,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showtimes and featured movies like '작전', '마린보이', '워낭소리', and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